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Field Report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KBS 드라마 '추노' 대상을 포함해 4개 부문 석권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3일(방송의 날) 오후 5시 10분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방송 협회(회장 김인규)가 주최했으며,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방송된 작품 및 공적이 있는 방송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과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군 KBS 드라마 '추노'가 대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석권했다. '추노'는 대상과 더불어 중단편드라마TV부문, TV 연출상, 작가상 등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 또 MBC '선덕여왕'도 미술상, 조명상, 영상그래픽상, 탤런트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MBC '아마존의 눈물'은 다큐멘터리 TV부문, 음악상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개인상으로는 박 애리가 국악인상, 소녀시대가 가수상, 박성호가 코미디언상, 고현정이 탤런트상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녀시대와 고현정은 스케줄로 인하여 시상식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사회는 KBS 김재원 황수경 아나운서, MBC 김정근 최현정 아나운서, SBS 최기환 이혜승 아나운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여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명단



작품상

- ▲장편드라마(TV)=SBS '찬란한 유산'
- ▲중단편드라마(TV)=KBS 2TV '추노'
- ▲연예오락(라디오)=MBC '배철수의 음악캠프'
- ▲연예오락(TV)=KBS 2TV '개그콘서트'
- ▲문화예술(라디오)=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동규입니다'
- ▲문화예술(TV)=KBS 1TV '낭독의 발견'
- ▲어린이청소년(라디오)=MBC '별이 빛나는 밤에'
- ▲어린이청소년(TV)=SBS '꾸러기 탐구생활'
- ▲취재보도(라디오)=CBS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의혹'
- ▲취재보도(TV)=SBS '연속보도-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집중점검'
- ▲심층보도(TV)=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
- ▲국제보도=KBS 1TV '뉴스9-현대사 비밀문서 발굴 연속보도'
- ▲다큐멘터리(라디오)=불교방송 '다문화가정 특별기획-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 ▲다큐멘터리(TV)=MBC '아마존의 눈물'
- ▲생활정보(라디오)=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생활정보(TV)=EBS '생방송 교육마당'
- ▲지역취재보도(라디오)=CBS광주방송 '제2의 코시안, 다문화가정 입양자녀 리포트'
- ▲지역취재보도(TV)=대구방송 '수은 돔배기 파동'
- ▲지역심층보도(TV)=OBS '시사인사이드 4부작-2010 지방자치보고서'
- ▲지역다큐멘터리(라디오)=전주MBC '월매의 초대-판소리에 맛이 보인다', KNN '조선의 지혜-구휼'
- ▲지역다큐멘터리(TV)=대구MBC '천년의 향, 우리누룩', KNN '강을 만드는 강'
- ▲지역생활정보(라디오)=OBS '신 부자학'
- ▲사회공익=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
- ▲뉴미디어=MBC플러스미디어 '페이퍼로드'

개인상

- ▲공로=KBS 홍두표
- ▲보도기자=KBS 이영현
- ▲스포츠제작보도=KBS 배재성
- ▲카메라기자=OBS 현세진
- ▲아나운서=창원MBC 정은희
- ▲진행자=CBS 오미희
- ▲앵커=SBS 김소원
- ▲라디오연출=KBS 김혜경
- ▲TV연출=KBS곽정환
- ▲지역방송인상=강릉MBC 김진형
- ▲뉴미디어방송상=EBS 강순도
- ▲미술=MBC 정지섭
- ▲조명=MBC 오승만
- ▲영상그래픽=MBC 백성흠
- ▲기술=KBS 김승일
- ▲촬영=KBS 정하영
- ▲영상제작=KBS 장병민
- ▲음악상=MBC 심현정
- ▲작가=KBS 천성일
- ▲성우=SBS 양지운
- ▲코미디언=KBS 박성호
- ▲탤런트=MBC 고현정
- ▲가수=소녀시대
- ▲국악인=박애리
- ▲특별상=KBS KEP



김승일

(KBS 디지털인프라국 디지털품질관리부장)

11년 전 칸첸중가 생방송을 계기로

우리 기술로 히말라야 생방송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어
꾸준한 자료 수집과 장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방송대상 기술상 수상소감

이런 귀한 상이 어떻게 내게 떨어졌을까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안나푸르나 생방송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등정시비에 휘말려 프로그램 관련 상은 못 받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리고, 후유증인지 뭔지 눈 양쪽에 망막손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 축낸 대가인가 하는 슬픈 생각도 들었다. 한국방송대상은 방송기술인에 할애된 분야가 너무 적어 꿈도 꺾이지 않을 만큼 희귀한 것이기에 기쁨은 최고다.

앞으로의 바람

우여곡절이 많았던 생방송이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왜 이런 위험스런 생방송에 나설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11년 전 칸첸중가 생방송을 계기로 우리 기술로 히말라야 생방송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어 꾸준한 자료 수집과 장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저해상도의 생방송이라도 좋다고 나서는 제작자들이 있는데 엔지니어가 참여 안 하는 방송이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다. 역사적 방송 현장에 엔지니어의 참여가 없었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겠는가? 이제 불가능한 생방송 영역은 없어진 것 아닌가? 한편으론 우리는 너무 피동적인 방송엔지니어로 안주하려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뒤돌아 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안나푸르나 정상까지 오른 산악인과 촬영감독,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듀서들도 굉장한 부담을 안으면서 방송을 했을 것이다. 방송 특성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구석엔 피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면 방송엔지니어의 중요한 축에서 밀려 날 수 있다. 100% 무결점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과감히 도전하여 방송현장에 주축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방송대상 조명상 수상소감

타방송사에 우수한 조명감독님들도 많은데 대장금, 선덕여왕 등 시청률이 높은 작품의 조명감독을 담당하게 되어 조명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TV 제작에서 시간과의 싸움, 조명 표현에서도 아쉬움이 많았지만 내용이 어떨지 다음 대본이 기다려졌고, 힘들면서도 방송 시청률이 궁금했다. 졸지 않으려고 눈뜨고 자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눈만 아파 순전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가 협업이 잘 이루어져 만든 작품이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다. 끝으로 조명상을 수상하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신 연출 및 제작 스태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선덕여왕의 조명 디자인

대장금에서는 일반 빈민가와 서민들을 소재로 한 내용이라 소규모 세트가 많았다. 그러면서, 조명 처리 공간의 협소, 그림자 처리, 바닥 장판 색, 벽지의 색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선덕여왕에서는 상류 계급인 궁궐 내 세트와 고급스러운 소품, 회의 탁자와 의자가 많아 출연자 동선에 따른 조명 처리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한 가지 있었다면 카메라 드라이 리허설을 참여하여 출연자 동선을 확인하여도 부조정실에서 녹화하면서 영상으로 재현되었을 때 조명의 리얼리티, 전체적인 세트와 인물의 조명이 아름다운 조화가 표현되지 않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또한, 여성 연기자들이 조명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요구에 연기자에게 조명은 상대방 출연자의 인물 Tone(특히 남자 연기자와 출연하는 Scene)과 전체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의 품질을 고려하여 처리한다고 설명하면서 거절하였다. 그 당시의 연기자의 표정이 생각나면서 절대로 싫어서도, 미워서도 아니란 것을 뒤늦게나마 전하고 싶다.

앞으로의 바람

선진 외국 방송사의 작품 우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 방송사에서도 점차적으로 제작 여건 및 시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작품의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 기술과 조명 분야의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한다. 또한, 개인의 자질과 노력도 있겠지만 어느 분야에선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들을 선후배 사이에 공유하고 전달한다면,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노력하고 발전해나가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오승만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장)

카메라 드라이 리허설을 참여하여 출연자 동선을 확인하여도
부조정실에서 녹화하면서 영상으로 재현되었을 때
조명의 리얼리티, 전체적인 세트와 인물의 조명이
아름다운 조화가 표현되지 않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되살아난다.